의대 학종, 고교 서열·성적순?… 입시의 맹점



지 상 범의
입시 토크

입시 현장에서 "의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결국 고교 서열과 교내 석차순으로 갈린다"는 주장이 반복된다.최 근 한 대입전문가의 영상과 시청자 댓글 논쟁은 이러한 통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영상은 의대 학종을 선택과목이나 서류 평가가 작동하는 전형이 아니라,고교 유형별로 고착화된 석차 라인이 지배하는 전형으로 규정하며 "의대 학종은 성적순"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제시된 통계와 현장의 반론, 그리고 변화하는 대입 제도의 맥락을 함께 살피면 이는 현실의 일부 단면을 과도하게 일반화한 해석이다.

영상은 21개 자사고의 의대 819건(재학 426·졸업 330건 등) 실적과 휘문고(139건),상산고(117건),세화고(75건),중동고(66건) 등의 사례, 그리고 상산고의 2025학년도 실적(의대 182건 중 정시 124건)과 주요 일반고·갓반고 사례를 근거로 "교과도 학종도 성적순"이라고 결론짓는다. 하지만 대학별 합격 '건수'는 중복합격과 N수생, 정시 실적이 혼재된 지표다. 학교별 모집 정원과 졸업생 비중,지역인재 전형 유무에 따라 수치의 맥락은 완전히 달라진다. 실제 댓글 창에서도 전교생 규모 대비 현역 진학률과 지역인재 비율을 둘러싼 반박과 엇갈린 현장 증언이 이어졌다. 수시와 정시,재학생과 졸업생을 분리하지 않은 채 단편적 종합만으로 고교 서열을 단정하는 것은 통계 독해의 명백한 맹점이다.

더욱 경계해야 할 대목은 "의대 학종은 서류나 선택과목을 보지 않는다"는 무용론이다. 생물 등 핵심 과목 이수 없이 등급만 챙기면 합격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단언이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내신 5등급제 체제에서는 진로선택과목에도 석차등급이 표기되고 1등급 비율이 10%로 확대되면서, 단순 등급 숫자만으로는 상위권 변별이 어려워진다. 결국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과 수행평가 요약지에 담긴 전공 연계 교과 이수 여부와 학업 탐구의 깊이가 당락을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된다. 실제 댓글에서도 "같은 학교에서 전교 6등·13등은 떨어지고 9~11등·15등·18등은 1차에 합격했다"는 토로가 나왔다. 블라인드 평가 환경에서도 교육과정 이수 맥락과 탐구 서사의 정합성이 전형마다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단순 등수 논리로는 이러한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

물론 수도권 수험생에게 수시 의대의 문턱이 높고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은 새겨들을 대목이다. 그러나 입시를 단정적 구호로만 소비하면 '고교 서열 숙명론'이나 '비교과 만능론'이라는 양극단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중복합격과 정시 실적이 섞인 외형적 건수에 흔들리지 말고 전형별 실제 합격 구조를 냉철히 따져야 한다. 나아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5등급제 흐름에 맞춰 기하·미적분Ⅱ 및 생명과학·화학 등 핵심 수과학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고, 내실 있는 학업 역량과 교과세특·수행평가 요약지 기록을 탄탄히 쌓아가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빨라진 배송, 엇갈리는 책임… 새벽배송의 빈틈



기자 수첩
신 원 선
〈유통&라이프부〉

퇴근길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산지의 신선함이 놓이는 시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액은 14조 4783억 원, 모바일 쇼핑 비중은 78%를 넘어섰다. 비대면 새벽·당일배송이 명실상부한 국민 식생활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눈부신 양적 팽창의 이면에는 '콜드체인(저온 유통망) 사각지대'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폭증하는 물량을 유통망이 감당하지 못해 과부하가 걸리면서 온도 이탈로 인한 변질 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전체 소비자 불만의 약 40%가 '배송 지연(21.5%)'과 '품질 하자(18.1%)'에 집중됐다. 업계 통상 반품·폐기율만 대입해도 연간 수백억 원대의 사회적 비용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문 앞 비대면 배송 구조에서는 택배가 도착한 새벽 시간부터 소비자가 문을 열고 상품을 확인하는 아침까지 시간적 공백이 발생한다. 배송 당시 상품의 온도와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면 변질 원인이 유통 과정에 있었는지, 배송 이후 소비자의 보관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일부 유통업체가 배송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만 물을 수는 없다. 새벽배송은 소비자가 비대면 수령을 선택하는 서비스인 만큼 상품을 받은 뒤 신속하게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도 필요하다. 배송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시간 상품을 문 앞에 방치하거나 변질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일률적으로 판매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 구제와 판매자의 책임 범위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간 단위로 선도가 떨어지는 생물을 일반 공산품과 동일한 고객서비스(CS) 기준으로 처리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상담원 연결이 지연돼 뒤늦게 항의하면 '수령 후 24시간 이내 사진 증빙이 없어 보상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식이다. 반면 조건 없는 선환불 제도는 악성 소비자(블랙컨슈머)의 악용 가능성을 키워 영세 유통사나 산지 직송 농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보호가 대립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배송·보관 기록을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 tree6834@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7일 (음 10월 1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니 가속도가 더해집니다. **60년생** 하던 일이 무난히 풀려나갑니다. **72년생**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귀인입니다. **84년생** 아랫사람과 도모해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소 **49년생** 직원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힘쓰세요. **61년생** 금전운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73년생** 금전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85년생** 후배나 동생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호랑이 **50년생** 지병이 있으면 병원을 찾아보세요. **62년생** 서쪽에서 빛이 보입니다. **74년생** 욕심을 부리면 길하지 못한 일들이 따를 것입니다. **86년생** 투기성 있는 금전거래에 참여하는 일은 좋지 않습니다.

토끼 **51년생** 사기에 걸려드는 수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세요. **63년생** 다른 날보다 무척 바빠집니다. **75년생** 입지는 더욱 단단하게 될 것입니다. **87년생**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용 **52년생** 눈에 보이는 길을 가는 것이 좋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64년생** 전업의 제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6년생** 구설수를 항상 조심하세요. **88년생** 잘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세요.

뱀 **53년생** 판단을 미루시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세요. **65년생** 상황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77년생** 주변사람이 배신하게 됩니다. **89년생** 기쁜 하루를 보냅니다.

말 **54년생**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합니다. **66년생** 다툼을 벌여서 한 번 서로 다툴 수 있습니다. **78년생** 가화만사성이라 했습니다. **90년생** 행하는 일이 마치 뜬구름이 생겼다가 사라짐과 같습니다.

양 **55년생** 재수는 평탄한 편 입니다. **67년생** 깊이 개입하려 들면 어려워집니다. **79년생** 좋은 일은 주로 집 밖에서 생깁니다. **91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합니다.

원숭이 **56년생** 동북 양방에 반드시 기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68년생** 시작도 되기 전에 결론을 내려 하면 부당합니다. **80년생** 거짓말은 절대 안됩니다. **92년생** 오늘은 밖으로 나아가세요.

닭 **57년생** 집에 있으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69년생** 배우자와 여행을 떠나세요. **81년생** 근심과 괴로움이 당신을 쫓아다닙니다. **93년생** 남의 일에 끼어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개 **58년생** 오직 동쪽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70년생** 새로운 일을 찾아 그것에 재미를 붙여 인생을 즐기세요. **82년생** 할일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94년생** 집안 청소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돼지 **59년생**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시도하세요. **71년생** 미래의 계획을 완성하세요. **83년생** 주변의 친구가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95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니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김상회의 四季

부부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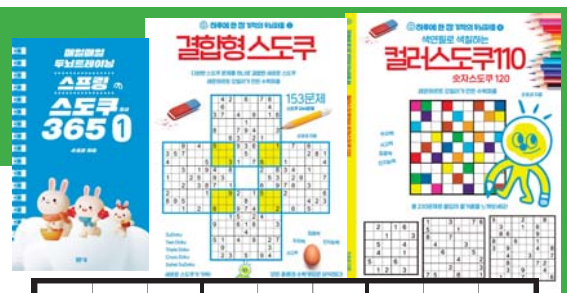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은 우리 국민에게 익숙한 법정기념일이다. 그런데 '부부의 날'은 익숙지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에 비하면 부부의 날이 공식적으로 법정기념일이 된 것은 이제 이십 년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제정추진위원회' 가 부부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안을 거쳐서 2007년 5월 21일을 국가공인 법정기념일로 승격되었다고 한다. 본래 1995년 경상남도 창원에 살았던 권재도 교회 목사 부부가 부부의 화합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취지에서 제정하였고 부부간의 관계를 되새기고 화합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만든 기념일이라는데, 누군가는 가뜩이나 행사가 많은 5월에 굳이 부부의 날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하기도 한다. 5월에 행사가 많아 생활비 측면 가장 부담스러운 달이기도 하지만 결혼기념일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같은 성격의 이중과세가 아니냐며 그닥 즐거워하는 분위기가 아닌 듯하다.

특히 결혼을 피하는 청춘남녀도 많고 혹여 이혼한 부부들도 많아진 형국에서는 뭔가 씁쓸한 날일지도 모르겠다. 부부지간은 때로는 밉다가 곱다가 애증이 교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의지처가 부부 사이다. 명리학 고전인 적천수(滴天髓)에 부처인연숙세래(夫妻姻緣宿世來)란 말이 있다. 부부가 되는 인연은 인위적이거나, 우연히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생에서부터 온다고 한 것이다. 부부의 금실이 좋고 나쁜 것, 즉 서로 자주 싸우거나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 바람피우고 속 썩이는 것은 물론 자식이 잘되거나 속을 태우는 것은 물론이요, 처가나 시댁과 좋고 나쁜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독수공방 등등이 모두 전생에 정해진 각본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불가에서 말하는 부부인연은 칠천 겁의 인연이라고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5		3			1
			8			3	2	7
		9	4	3		1	8	
		5				9		
	1	4		5	9	7		
9	3	7			8			
6			9		4			8

		1		6			8	3
6			9					
			1		2		7	
8	9		2				6	
		7				3		
	6				3		5	9
	2		6		1			
					4			7
3	1			8		5		

8	3	2	4	7	9	1	5	6
4	1	5	8	2	6	9	3	7
9	7	6	5	1	3	6	7	2
3	6	7	9	5	2	4	1	8
2	4	9	7	8	1	3	6	5
5	8	1	3	6	4	2	9	7
7	2	4	1	9	8	5	6	3
6	5	3	2	4	7	8	1	9
1	9	8	6	3	5	7	2	4

3	1	4	7	8	9	5	2	6
5	8	6	9	2	3	4	1	7
7	2	9	6	5	1	3	4	8
1	6	2	4	7	3	8	5	9
4	5	7	8	9	6	3	1	2
8	9	3	2	1	5	6	7	4
9	3	8	1	4	2	6	7	5
6	7	5	9	3	8	2	4	1
2	4	1	5	6	7	9	8	3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44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4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